

한국축산업과 단체의 역할, 축산 지도자의 자세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외국의 축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자 외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외국의 축산 현장을 시찰하시고 오신 분들은 대체로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로 뉴질랜드나 미국, 호주 등을 다녀오신 분들은 “축산업 그만 뭐야

졌어. 이 상태로는 안될 것 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하면 덴마크나 독일 등 우리나라와 인구밀도나 분포가 비슷한 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 그래도 우리나라 축산 가능성은 있어. 노력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나 소위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잘하면 돼. 우리 열심히 산업에 종사

하고 정부가 정책만 올바르게 세우면 우리나라 축산 충분히 가능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가지 얘기를 듣고 많은 생

각을 합시다만 결론적으로 저 역시 우리나라 축산은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축산의 한 분류인 양륙업 역시 충분히 비전있는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이 문제입니다.



윤봉중/축산신문 사장

스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소위 2천5백 고지까지 젖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5백고지에서 젖소를 기르는 사람, 또는 1천, 2천 고지에서 젖소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정책지원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지가 많기 때문에 국토를 조화롭고 알뜰하게 관리하기 위해, 또 농민을 농촌에 붙잡아 놓기 위



해 적극적인 지원을, 세심한 부분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년 전 우리나라처럼 IMF를 경험했습니다. 영국은 IMF를 겪으며 식량문제로 타격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IMF 상황하의 영국은 식량 구입시 평소 구입 가격보다 두배내지 세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산을 위주로한 농업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농업이 육성되려면 농민이 농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생활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을 도시에 만들 경우 농촌에 만드는 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영국의 위정자들은 직감했으며 농촌환경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일부 국내 위정자들이 “축산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축산물은 비싸다”라며 중요한 식량산업인 축산업에 대해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 이를 위한 투자가 실시되어야 마땅한 일이지 생명산업을 포기, 또는 폄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축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양록분야도 과연 양록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논리개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록인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양록인들을 위해서 앞다퉀 주거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양록산업 문제는 양록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싸울건 싸우고 따질건 따져야 하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을 모으고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양록산업이 발전해야 하는 당위성, 즉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록업계에도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조금을 활용하여 양록산업의 당위성 및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 및 논리들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탄탄한 논리가 뒷받침된다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기틀로 양록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양록산업은 꾸준한 발전을 지속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슬기로움을 발휘하길 기대하며 가능합니다. **안국양록**